

#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최 용 해

## 1. 6.15 와 통일위업의 현단계에 대한 인식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족이 걸은 21 세기의 첫 10 년대는 우리 민족의 분단사를 통일사로 발본적으로 전환한 의의깊은 《력사》로서 오늘날에 더욱 그 빛을 뿌리고있다.

6.15 이후 10 년가까이 펼쳐진 북남간의 《평화공존시대》는 반세기이상 지탱되어온 분단질서를 제도와 환경, 그리고 특히는 사람들의 정신구조의 차원에서 극적으로 허물어나감으로써 모든 민족성원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꿀맛》을 실감있게 맛보게 하였다.

남조선사회가 《보수》로 급선회했다는 피상적인 분석이 란무하는 오늘 지난해 《연평도사태》를 비롯한 조선반도정세의 극단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국민》들이 대북적개심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명박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하여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있는것은 6.15 이후에 전개된 《평화공존시대》의 가치와 의미를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사회로 하여금 우리 민족성원들이 그 《꿀맛》을 잊기에는 시간이 너무 덜 흘렀을것이고 그보다 리명박의 집권이후 통일지향이나, 분단회귀냐하는 우리 스스로의 정신적갈등에 대하여 지난해 일어난 《천암함사건》과 《6.2 지방선거결과》의 함수관계는 민족사의 방향은 결코 거꾸러 돌려세울수 없다는 신심을 굳히게하는 해답을 줌으로써 지난 정신적방향이 매우 실없는 시행착오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날 통일에 대한 관념적이고 희망적인 관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적이며 능동적인 파악을 추구하는것은 그저 우리의 미래를 점치기 위한 담론차원의 필요성을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문제로서 지극히 절실하고 의미있는 문제로 다가오고있다고 할수 있다.

2011 년 새해공동사설에서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종자로 담아 올해 당과 정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지침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관계개선의지》는 그저 전술적차원의 위기모면술이 아니라 전략적차원의 대남로선을 재천명한것으로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강성대국》론에 정책론적으로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공화국의 이번 공동사설을 놓고 언론들이 공화국의 《전향적인 대남정책》이라고 대서 특필하였지만 공화국의 대남로선은 리명박정권의 출범이후에도 6.15 공동선언이후 견지 하여온 그 정책적일관성에 변함이 없다.

공화국의 《강성대국론》은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서의 통일성사와 국제사회진출이라는 전략적의지를 내포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2012 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조건으로서 적어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이행과 《북남간의 평화공존》이라는 파라다임전환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분단체제와 정전체제속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것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에 근본적인 장애를 안을수밖에 없는것이며 공화국이 표명한 강한 북남관계개선의지는 이 근본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승부수를 내건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오랜 대화와 협상과정을 거쳐 6.15 와 10.4 를 통해 우리 나라통일의 진입방식, 그리고 조미교섭과 6 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벌써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충분히 그려놓고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요는 정치결착이다. 짝어 말하면 모든것이 이제는 오마바와 리명박정부의 정책전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화국은 2012 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그 정책전환을 유발하기 위하여 정치결착의 판을 짜고 그 테이블로 오바마와 리명박을 끌어내려고 하고있는것이다.

미시적인 정세론의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 즉 민족사의 합법칙적인 발전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볼때 우리는 6.15 이후 진통을 겪으면서도 전개되어온 통일제 1 단계로서의 《분단의 평화적관리기》를 거쳐 이제 조선반도의 파라다임전환을 통해 법적,제도적 공고성을 가진 평화공존시대 즉 통일의 제 2 단계에로 돌입하는 립계점에 서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사의 발전추이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전제로 할때 우리가 지향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는 분단시대가 아니라 통일시대에 펼쳐지게 될 우리 운

동의 질적으로 새로운 력사적단계라는것을 가늠할수 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립각하여 총련의 현행통일정책에 대하여 분석한 다음 새 시대 민족적애국운동으로서의 통일시대 운동상을 구축하기 위한 아젠다(정책과 제)를 명백히 하려고 한다.

## 2. 총련제 22 차전체대회방침에서 보는 총련의 통일정책

현행총련사업은 조직의 결성 이래 류레없는 시련과 난관을 체험하면서 한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기를 살고있다고 볼수 있다.

오늘의 시련이 해외교포일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시련이건, 주체론적인 시점에서 본 우리의 잘못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 짙은 시련이건 오늘의 시련은 운동과 동포사회의 존재자체를 평가름하는 사활성을 띤 시련이라고 볼수 있다.

오늘의 시련을 넘어서기 위한 첫째과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치렬하게 모색하고 전환기의 사명에 맞게 정책을 갱신하는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데 있을것이다.

력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나라 통일운동사를 더듬어볼때 80 년에 제시된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나라통일위업을 질적으로 전진시키는 계기점이 되었으며 80 년대이후의 통일운동양양기를 거쳐 6.15 공동선언으로 이르게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당 6 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공화국의 지난 통일정책에 대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 마련된 위대한 정책갱신의 산물이였다.

민주기지로선으로부터 지역혁명로선(남조선혁명로선)으로 전개되여온 통일정책이 《사상과 제도를 그냥 두는 방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지양됨으로써 공화국의 통일방안은 조선반도실정에 가장 현실성과 합리성을 가진 방안으로서 남조선의 통일정책을 이끌었을 뿐아니라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민족성원들이 통일운동에 나서게 하는 리념적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 축적이 6.15 로 외화되게 된것이다.

지난해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부

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수정한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수 있을것이며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않을뿐아니라 케케묵은 《북붕괴론》까지 들고나오는 현남조선 정권의 정책과 행태에 비해 훨씬 분단지양적이며 통일지향적이라고 할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 즉 전환기에는 고정관념이나 기득권에 사로잡히는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옳게 포착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갱신을 동반할때만 사회나 사회적집단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을것이며 우리 령도자의 위대성은 그 적절한 정책갱신과 그 실천을 위한 강한 리더쉽에서 찾아볼수 있을것이다.

지난 총련제 22 차전체대회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전환기에 관통시켜야 할 적절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저 총련사업의 3 년간의 단기전략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라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중기전략,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총련제 22 차전체대회에서 제시된 방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되어있다.

《민족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조국해방과 총련결성이래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가 해결되고 재일동포들이 겪어온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제거되는 운명전환의 국면이 열릴것입니다.

특히 조일관계의 정상화는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처지개선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조미 두 나라가 적대관계로부터 평화와 협조관계로 전환되고 조일관계도 평양선언에 기초한 국교정상화에도 나가게 되면 재일조선인의 지위와 생활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동적인 사변을 앞두고 총련은 결성이래의 역사적과제실현을 전면에서 내걸고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며 후대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진공적으로 열어나갈것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2 차 전체대회 문헌집 33~34 페이지)

이번 22 전대회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의 해결을 전제로 펼쳐지는 운동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으며 그 시대가 재일동포들의 불행과 화근이 제거되는 운명전환의 국면이라고 규정하였다.

《새 전성기방침》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새 전성기의 전제로서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의 실현문제에 대하여 옳게 파악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으며 그것은 재

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의 실현이자 곧 조일국교정상화의 실현이라고 왜소화하는 폐단을 극복하는데 있을것이다.

조일국교정상화는 우리 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의 중요계기이지만 조국의 자주성실현을 전제로하지 않는 그것자체의 가치극대화는 리론실천적차원에서 《량날의 칼》이 될수 있으며 《재일론》으로 굴러떨어지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있다.

민족적애국운동으로서의 우리 운동은 본질적으로 본국의 자주성실현을 전제로 그 운명이 개척되는것이므로 우리 운명전환의 근본적인 국면은 조국의 강성대국건설과 평화통일실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이 전제하에 조일국교정상화를 결부하고 부각시키야 《새 전성기》의 시대적면모를 정확히 반영하게 될것이다.

현실정치의 차원에서도 조일국교정상화는 조미적대관계청산과 북남관계개선의 후속사항으로 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성격을 가지고있으므로 조일국교정상화가 조선반도의 파라다임전환없이 당돌하게 실현된다고 보는것은 《조선문제》에 대한 물리해로부터 산생될뿐아니라 정책수립의 기초로서의 그릇된 현황인식에 빠질수도 있는것이다.

이번 대회방침에서 밝혀진 《민족사의 새 시대》를 전제로 한 《새 전성기》는 조미적대관계의 청산과 통일시대로의 진입을 대전제로 하고있으며 이번 방침에서는 어디까지나 동포들의 운명개척에 생활적으로 직결된 문제로서의 조일국교정상화를 극적으로 부각시킨것이라고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민족적애국운동으로서의 우리 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전환의 국면은 조국의 번영 즉 공화국의 강성대국건설과 평화통일실현을 전제로 하여 본국에 더욱 깊이 귀속하려는 동포사회의 존재방식을 더욱 확고히 다진 조건에서 조일국교정상화를 맞이하여야 우리 운동의 《새 전성기》를 안아올수 있는것이다.

우리 운동은 이제 조선반도의 파라다임전환을 전제로 북남간의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 진입의 민족사적추세를 직시하여 그에 맞는 정책 및 가치 갱신을 서둘러야 할 운동사적시점을 맞이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처럼 시대에 부응한 정책갱신을 통해 통일과 우리 운동을 직결시키고 우리 운동의 비전을 그려 동포사회에 내보내야 만 《동포되찾기》와 《새 전성기》가 현실화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펼칠수 있을것이다. 이 정책갱신이야말로 우리 운동의 근본을 외면하는 로선전환이나 수정주의가 아니라

민족사의 합법칙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총련의 보편적인 가치와 동포대중의 리익을 함께 수렴하는 진정한 《계승과 혁신》의 관철이며 우리의 지혜를 깡그리 바쳐 이루어야 할 동포사호보존을 위한 필수의 선택지일것이다.

### 3.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아젠다 - 통일정책의 계승과 혁신

안주를 거부하고 혁신을 추구하는것은 진보의 속성이며 시대에 부합되는 끈질긴 갱신 작업을 소홀히 하면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수화되기 마련이다.

상기한바와 같이 정책을 갱신한다는것은 우리가 지켜온 《근본》을 수정한다는것이 아니라 《부정의 부정》을 통한 변증법적지양을 통해 우리의 《근본》을 보다 질높게 긍정하려는 혁신적인 작업인것이다.

현행총련사업은 총련제 22 차전체대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승과 혁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새 시대에 부합되는 정책갱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있으며 그에 따라 《새 전성기》방침을 전제로 일련의 아젠다에 대한 검증과 갱신작업을 따라세워야 할 절박성이 제기되고있는것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규정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며 사람들이 그 틀을 거부하면 그 사회적집단은 쇠퇴될수밖에 없는 법이다. 대중조직으로서의 총련은 그 지반인 동포대중과 분리되어 추상적으로 존재할수 없으며 삶의 공간의 틀을 짜는 정책수립과정에서도 결성 이래 견지하여온 총련의 보편적가치와 동포대중의 리익, 욕구를 대치시키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높은 지성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랭전붕괴이후 재일동포사회에서 현저히 나타나고있는 탈조국, 탈조직현상은 세대교체를 비롯한 동포사회의 일련의 변화들이 그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총련의 정책과 동포대중의 가치지향, 정서간의 정합성문제에서 근본요인을 찾아야 할것이다.

조국과 조직을 외면하는 재일동포들의 정서는 6.15 이후 북남간의 평화공존시대가 펼쳐지면서 나타난 《민족통일의 당위와 2 분법적조국관의 지렌마》의 구도가 그 핵심요인의 하나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탄생이후 오늘까지 민족의 자주성 즉 민족적정통성을 지켜왔을뿐 아니라 우리 재일동포들을 항상 보호해주고 품어안아준 우리의 진정한 조국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으며 역설적으로 정치적정통성이 없을뿐 아니라 재일동포들을 《기민》한 남조선은 우리의 조국일수 없었으며 부정되어 마땅한 실체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6.15 를 기점으로 조선반도에서 분단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론리와 정서가 진리성을 가지면서도 민족의 새로운 리익추구와 발전추세속에서 일련의 모순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 또한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 요인은 바로 6.15 가 그저 북남관계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킨 계기나 사건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파라다임자체를 《대립》에서 《공존》으로 극적으로 전환시킨 력사적사변이었기때문일것이다.

6.15 라는 《변혁적사변》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북이건 남이건 또한 외세이건 통일과 평화공존을 외면하고 분단질서에 고집하려한다면 더는 이 지역에서 실리를 얻지 못할뿐 아니라 존재의미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었으며 바로 여기에 6.15 에 담겨진 장군님의 진의가 있는것이다.

6.15 가 만들어낸 《공존》이란 파라다임은 재일동포사회에서도 세대교체와 일본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한 동화의 촉진과 동포사회에서의 리탈현상을 《민족》으로, 《민족 커뮤니티》으로 복귀시키는데서 그 가능성과 호조건을 제공해주고있다.

리념과 정견을 초월하여 모든 재일동포들이 6.15 에 환호하고 올림픽공동입장에 울며 총련과 민단의 화합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모습들은 우리로하여금 재일동포사회에서도 분단구조를 해체할수 있으며 민족적애국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게 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령적 4 월말씀에서 우리 운동을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서는 안되며 변화된 세계정세와 사업환경, 총련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신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수 있을것이다.

전환기 즉 시련과 가능성이 혼재하고있는 이 력사적시대에 총련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실공히 변화하는 세계와 조선반도, 그리고 재일동포사회의 객관적인 실태에 철저히 발을 붙인 정책갱신을 진행하고 그것을 하루속히 실천하는데 있을것이다.

우리가 검토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아젠다는 두말할것없이 랭전시대에 류통되었던 분

단조국관을 통일조국관으로 즉 련방제통일시대진입을 전제로 《1 민족 2 국가관》을 《1 민족 1 국가 2 체제관》으로 지양시켜나가는 문제일것이다.

이는 동포사회를 담는 《그릇》을 최대화하고 3 세,4 세를 비롯한 새 세대를 묶어세울수 있는 새로운 동포결합방식을 구축하는데서 필수의 과제일뿐아니라 장차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진 500 만해외교포들의 《범해외교포네트워크》를 만들어내여 총련이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하게하는 가능성으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민족적자주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통성은 분단질서를 고수하는데서 결코 지켜질수 없으며 통일조국 즉 자주화되고 선진화된 통일민족국가가 계승해나갈때 자기완결되며 그 역사적사명을 다하게 되는것이다.

그와 같은 대국적시점에서 볼때 리명박정권 또한 통일의 대상이며 리명박과의 통일협상은 남조선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고있는 분단의 기득권세력과 수구세력들을 민족통일어로 수렴시켜나가는 피할수 없는 통일사적과제로 제기되는것이며 공화국의 현행통일정책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것이다.

21 세기의 새로운 10 년대기로 들어서는 우리 총련앞에는 통일의 가치를 통해 제일동포들을 되찾으며 조국과의 쌍방향적관계를 더욱 질적으로 다져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선진화에 이바지하며 또 한편으로는 본국의 보호와 투자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족한 해외교포사회로 거듭날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총련의 새전성기는 결코 70 년대전성기의 복고가 아니라 새 시대의 창조이므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빛이 나게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